부영그룹

창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882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음력 2월 14일)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봄이 오는 길목… 벚꽃과 눈덮인 한라산 살포시 다가온 봄은 시나브로 무르익어 간다. 산 정상에 잔설(殘雪)이 견고하지만 대지에서는 어느새 푸른색의 유혹이 시작됐다. 봄기운이 완연한 19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 핀 왕벚꽃 뒤로 한라산 백록담의 눈 덮인 모습이 드러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거꾸로 가는 자원순환정책… "직무유기"

환경부, 음식 폐기물 우선 재활용 정책 수립·추진
행정시, 규정 불구 일반쓰레기와 혼합 소각장 처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편중… 재활용 외면한 결과"

환경부가 음식물 폐기물 우선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시에서는 이같은 정부정책 기조에 역행해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해 소각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직자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환경부의 조치에 도민과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방법으로 감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감량 기준을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행정시에 구축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우선 퇴비화·사료화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그동안 구좌·남원·표선·성산·조천읍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해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한 후 이를 제주시 회천동 소재 북부환경관리센터내 북부소각장에 반입,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동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소멸화 처리한 후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시가 유입 인구가 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맞춰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해 운영을 했더라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대표는 "그동안 행정에서 생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재활용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현재 음식물자원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리 대응을 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재활용을 우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을 분리해서 퇴비나 사료로 나가야 한다. 그 나머지 이물질은 소각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 처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탈리액(음식물을 짜면 나오는 물)은 전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고 나머지 고형분말(40%)은 퇴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향연

28~31일 제5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한라일보 등 8개 지역언론사 주최… 270개 업체 참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향연인 '제5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28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해 31일까지 나흘간 전국 각지역의 대표 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관련기사 7면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한라일보와 부산MBC 등 전국 8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며 (주)유니버설라이브가 주관한다.

박람회는 전국에서 엄선된 대표 특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현장 직거래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기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전국 대표 농산물과 특산물, 가공·기공 식품이 한 데 모인 지자체 홍보관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관 ▷전통식품관 ▷홈리빙관 ▷제과제빵관 ▷커피·차·주류관 ▷식품소재 및 첨가물관 등이 운영된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바이어 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270여개 식품업체가 참가하고 320여개의 부스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 (주)제주씨그린, 천지애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 온평모다들엉(주),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식회사,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메리엠제이, 네추럴영농조합법인, (주)제주팜이십일,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주), 농업회사법인 인투주식회사, 귤향영농조합법인 등 13개 업체가 나서 청정 제주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각인 시킬 예정이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주)유니버설라이브의 이문섭 대표는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들을 참여시켜 판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특히 제주자치도 등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참여 업체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타 박람회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참관객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매해 성장하고 있다. 2015년 3만5663명이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만7052명, 2017년 4만4700명, 2018년 4만840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 재도약 시동

도, 3대 전략 설정… 예산 100억 투입·추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설정하고 마이스 분야에 예산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전략은 ▷제주 MICE 산업 균형화 ▷국내·외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 확대 ▷제주 MICE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다.

제주도는 인프라 등의 '하드웨어'와 인적자원,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통해 제주 마이스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제주의 마이스분야 중 약점으로 꼽히는 전시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공공 와이파이(Wi-Fi)와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2년 3월 완공예정인 다목적 복합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형 특화전시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 MICE 산업 균형화' 사업을 살펴보면,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이 올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큰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음식·낚시 등 제주형 특화 전시상품을 개발하고, 도내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사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제주형 MICE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과 도내 주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회를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국내·외 마이스 유치 목표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220건으로 설정해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전자게임기구 지도·점검

27~29일 8개 카지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자게임 기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8개 카지노에서 운영하고 있는 409대의 전자게임(슬롯머신)과 144대의 전자테이블게임(ETG) 가운데 무작위로 83대의 전자게임과 28대의 전자테이블게임을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자게임 기구의 제조사, 테마명, 액면가, 배당률 등에 대한 신규검사와 갱신검사 이후 영업방법 신고사항 및 운영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특히 변조된 게임기구 사용 여부와 배당률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타
블랙박스 점검센타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 711-6544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스코마트에서는 업소는 물론 가정집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 | 냉장 | 냉동 | 대용량식품 | 가정용수입식품 | 음료 | 과자 | 잡화

언제나, 누구나,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제스코마트

본 점 제주시 연북로 444(도남동) ☎064)724-8000
서귀포점 서귀포시 상효로 39 (상효동) ☎064)732-7000
신제주점 제주시 신대로 109(연동) ☎064)727-5000
도 남 점 제주시 신성로10길 10(도남동) ☎064)724-7000

영업시간 : 07:00 ~ 24:00